

상장폐지 요건 강화…“2029년까지 부실기업 230곳 퇴출”

거래소, 불공정거래 적발·심리 6→3개월 단축 등 업무보고

코스피 상장사 시가총액 50억에서 500억까지 단계적 상향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할 경우 오는 2029년까지 약 230개 기업이 증시 퇴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 했다.

불공정거래 감사·조사 체계도 개선해 적발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6개월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국거래소 등 신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자본시장 활성화 및 금융인프라 내실화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거래소 외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상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먼저 거래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부실기업 퇴출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상장폐지 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유기증권 시장(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현행 50억원 이상인 시가총액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돼 2028년엔 500억원으로 상향된다. 매출액 기준은 2029년까지 300억원으로 올라간다.

코스닥 시장 또한 시가총액 기준을 현행 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거래소가 다른 변수는 제외하고 기준 상향만 적용할 경우 2029년까지 약 230개 기업이 강화된 퇴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체 상장사 가운데 약 8% 수준이다.

거래소는 “해외 주요 시장과 비교하면 국내 상장사 수는 여전히 많은 편”이라며 “다산다사(多產多死) 원칙에 따라 다양한 부실기업 조기 퇴출 방안을 정책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금 금융위원회는 “상장폐지 기준 강화에 따른 여러 반발이 있겠지만 변화의 의지를 갖추고 확실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계좌별 조사 시스템을 개인별 조사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사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를 크게 개선하겠다고 보고 했다.

이상거래 적발부터 심리까지 걸리는 기간이 통상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거래소는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잇따른 전산·보안 사고에 대응해 금융 인프라 전반의 보안 체계도 점검했다.

특히 금융보안원은 사전 예방 중심의 보

안 관계 강화 방안을 보고하며, 공격 탑재 단계부터 AI를 활용한 상시 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주주총회 활성화와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 준비 상황을 보고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와 대안신용정보 활용 확대 계획을, 금융결제원은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와 국가 간 QR결제 도입 추진 현황을, 보험개발원 실손 24 연계 확대 방안 등을 각각 설명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종로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환하게 웃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8.47p (0.84%) 오른 4,624.79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 4600선 첫 돌파…연일 ‘역대 최고’

일평균 거래대금 24조1050억…5년만에 20조 돌파

코스피가 12일 장중과 종가 모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사상 처음 4600선을 넘었다.

이날 코스피는 직전거래일보다 53.57p (1.17%) 오른 4639.89로 출발해 38.47p (0.84%) 오른 4624.79로 장을 마쳤다.

이는 지난 8일 장중 최고가인 4622.32와 지난 9일 종가 기준 최고점인 4586.32를 모두 넘어선 기록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4652.54까지 올랐다

가 점차 오름폭이 둔화해 한때 하락 전환

하기도 했으나 이내 상승세를 되찾았다.

유기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3512억원, 1013억원 순매도한 반면 기관은 2100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89p (0.20%) 상승한 949.81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증시는 대형 반도체주의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원전주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두산에너빌리티 (4.63%)를 필두로 비

에 이치아이 (3.70%), 한국전력 (3.24%), 한전기술 (5.24%), 한신기계 (3.30%) 등 원전주는 동반 상승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9일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 적자 전환했는데도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기대감에 4.41% 뛰었다.

반도체주는 오전장에서 동반 상승했으나 차의 실현 매물이 출회하며 오후에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달 들어 코스피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24조105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월별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20조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21년 1월 (26조4778억원) 이후 5년 만이다. 최근

코스피가 미국발 기술주 훈풍과 호실적 기대감에 고공행진하면서 지난달 (14조 4170억원) 대비로는 9조6880억원 (67%) 불었다. 이달 들어 12일까지 코스피는 9.7% 올랐다.

업계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전남농기원, 농업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확대 저탄소·AI기반 스마트농업 중심 131개 사업 453억 투입

전남도가 저탄소·인공지능(AI) 기반 농업 신기술 보급에 본격 나선다. 기후위기와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현장 중심의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새해 농업분야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131개 사업에 총 453억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농기원은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농업 현장의 구조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저탄소 재배기술 확산 △AI 기반 병해충·재해 대응체계 고도화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축산업 △치유농업 활성화 등 현장 수요가 높고 과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특히 시·군농업기술센터의 현장 기술지도와 연계해 농가 여건과 작목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예정

이다.

신청 기간은 해당 연도 1~2월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거주지 관할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사업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전남농기원은 농업인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 시범사업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현장 컨설팅, 기술 상담 도 병행할 계획이다.

선정된 농가는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의 기술지도와 밀착형 현장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신기술을 실제 영농 현장에서 검증하고, 성과가 확인된 기술은 지역 전반으로 확산시키다는 구상이다.

전남농기원 관계자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농업인이 직접 참여해 신기술의 실현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확산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관심 있는 농업인은 가까운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적극 상담해 달라”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도, 산단 등 중소기업 근로자 식비 지원

천원의 아침밥·든든한 점심밥 사업 본격 추진

사업 신청은 오는 14일까지로, 청원 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농정원의 서류 검토와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은 2월부터 아침밥 비용 일부를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취약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

한 점심밥” 사업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고물가로 식비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아침과 점심 식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17만8000식의 아침 식사를 지원한 바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가 저탄소·인공지능 기반 농업 신기술 보급에 본격 나선다. 사진은 로봇 활용 작물 수확 모습.